



빌리지 당회원들께,

빌리지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아쉬움의 마음, 또한 동시에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빌리지 당회에
저 역할로부터의 사임 의사를 전달드리고자 편지를 드립니다.

많이들 아시는대로, 지난 몇 년간 건강 문제로 고생해왔고, 최근에 크론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건강을 잘 유지해 왔지만, 규모가 큰 다문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의
부담이 커서,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감당해야 하는 맡겨진 역할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분별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저와
저의 아내 타마라는 깊이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론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향을 향해 이끄시는 것과, 또 큰 교회의 담임목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시는
역할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곳 빌리지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우리 빌리지에서 장기적으로 섬기도록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마음에, 이번 가을이 되기 전에 장로님들과 목회자들께 최대한 빨리 이
마음을 공유하여, 이후를 계획하고 새롭게 조정할 시간을 드려, 저희의 변동으로 인하여 교회에
끼쳐지는 영향이 최소한이 되고, 저희의 이동이 부드럽게 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빌리지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많은 장기적인 꿈들, 소망들, 그리고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기로는 저희 가정이 빌리지에서 함께 지내온 기간이 빌리지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문화 교회가 되는 비전을 더 충만하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부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로는 이러한 큰 변화로 인해, 회중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한으로
끼쳐지도록 저희가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계속해서 빌리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 딸들은 앞으로도 빌리지 공동체의 지체로서, 저희 부부의 사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고,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빌리지 안에서 그리고 빌리지를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 찬양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이번 가을을 계기로 빌리지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빌리지에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저희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과
은혜와 공의 안에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8월 5일

담임 목사 캔 와이츠마, 그리고 아내 타마라